

## 총 합 의 견

'음악창작소 지원 뮤지션 온라인 콘텐츠 지원사업'에 전국 17개 지역 음악창작소에서 총 63팀의 뮤지션이 지원하였습니다. 포크, 발라드, 록, 블루스, 레게, 재즈, 국악까지 장르적 다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.

뮤지션의 보컬 및 연주 실연 역량을 기반으로 음악적 활동, 창작능력, 대중성, 차별성을 심사하였습니다. 방송 출연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, 홍보 프로모션 등의 본사업의 지원을 특정 기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의지와 사업 이해도 역시 고려하였습니다.

일부 뮤지션의 경우 SNS 정보와 활동이 미흡해 뮤지션의 역량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앨범 사운드와 라이브 사운드 간 편차 역시 아쉬웠습니다. 본 지원 사업을 통해 미선정 뮤지션은 본인의 SNS 활동을 보완하는 계기로 선정된 뮤지션은 자신의 영역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